

우주센터 기공식 축하 메시지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주기술 자립을 이루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딛습니다. 우주로 향하는 우리의 꿈을 실현할 우주센터의 착공을 온 국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우주 개척을 위한 발걸음을 한발 한발 내디뎠습니다. '우리별 위성' 과 '아리랑 위성' , 그리고 '과학로켓' 의 개발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가 우주개발의 전초기지가 될 우주센터가 역사적인 첫 삽을 뜬다.

이제 우주시대는 먼 나라 얘기도, 머나먼 꿈도 아닙니다. 우리는 2015년까지 스무 기의 위성을 자력으로 개발하고, 세계 10위권의 우주산업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 우주센터에서 조립한 인공위성이 우리가 개발한 로켓에 실려 발사되는 그날, 우주를 향한 우리의 꿈은 성큼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제2의 과학기술입국' 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주기술은 과학기술입국을 앞당기는 핵심 전략기술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주센터의 기공에는 과학기술입국을 향한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과학기술입국의 선봉장,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개척자라는 사명감
으로 우주센터의 성공적인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